BARUN

정답과 해설

원서 해부 노트 정답

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· Part 4 파이널

PART 3

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

객관식 16문항(90점) + 서답형 1문항(10점)

배점: 4·6·9·11·12·13번 각 6.0점, 나머지 10문항 각 5.4점(합 90점) / 서답형 10점(부분 점수 없음)

번호	정답	해설
1	②	운명이 무엇을 주든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(160쪽 ¶5~¶6). ①은 좋은 운만, ④는 고난만 높이 쳐 '어느 쪽이든'과 어긋난다.
2	①	죽이는 것은 황제의 몫, 두려움 없이 죽는 것은 나의 몫(162쪽 인용 · ¶3). ⑤는 묻는다면 말하겠다는 대답과 반대.
3	③	오늘 들리지 않아도 기록은 천 년 동안 남는다(163쪽 ¶1 · 둘째 인용). ②는 미래의 의원이 기록을 뒤질 것이라는 말과 반대.
4	②	운의 변덕에 더 단단히 대비한 채 = 어떤 운이 와도 견딜 수 있게(160쪽 ¶3). ①은 운으로 부자가 된다는 오독, ③은 후원자의 보호로 읽은 오답.
5	④	황제가 잇따라 바뀐 해(161쪽 ¶6). ③ 네 황제가 권력을 나눈 것이 아니라 차례로 자리를 차지했다.
6	③	①·②·④·⑤는 헬비디우스, ③은 아직 살아 있어 가르칠 수 있었던 트라세아(160쪽 ¶7).
7	⑤	오토의 석 달이 갈바를 묻을 허락을 받을 만큼의 시간(161쪽 ¶7). ② 법무관은 오토가 죽은 뒤 ④ 쟁점은 제국의 지출.
8	④	평민 출신이다(160쪽 ¶2). 부유한 집안은 뒤에 입양된 집안(160쪽 ¶4)이라 매력적 오답.
9	⑤	주어 the son of a common soldier의 본동사가 없다 → became. ③ 앞으로 꺼낸 how절의 동사 ④ 주어 promise의 동사.
10	①	(A) It was ~ that 강조구문 → that (B) 입양'된' 것 → had been adopted (C) 이미 동사 rose가 있음 → 목적의 to protest.
11	③	네로가 나설 만큼 설득력 있게(convincing) 논증했다(161쪽 ¶1) → persuasively. ④ higher는 원서와 같다.
12	①	트라세아에게서 배운 원칙(161쪽 ¶8) → 칭호를 쓰지 않음. ②는 정반대, ⑤ 높은 가문은 선도 악도 아니다(160쪽 ¶3).
13	⑤	this nearby place는 '가까이 둔 유배지'를 받으므로 그 말 뒤, 처형 명령 앞. ④에서는 아직 가깝다는 말이 없다.
14	②	갈바의 소환 → 루틸리우스와 다른 선택 → 귀환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글에 훗날 마르쿠스의 평가(162쪽 ¶8)가 끼어든다.
15	③	(B) 66년 트라세아 재판 → (C) 동조 혐의가 장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→ (A) 자결을 도운 뒤 추방(161쪽 ¶3~¶4).
16	②	자기 생각을 말하다 죽은(spoke his mind) 헬비디우스 ↔ 대통령 앞에서 겁먹는(frightened) 의원들(163쪽 첫 인용). ① 침묵은 정반대.
서답형	SENATOR	(1) S Cluviae (2) E Thrasea (3) N Macedonia (4) A Galba (5) T Vespasian (6) O Epictetus (7) R False → S-E-N-A-T-O-R. 완성 단어 senator(원로원 의원) — 이 장의 제목 · 자기 검증 장치. 함정: J. Fannia(트라세아의 딸 자신), M. Cato(비유 속 집안), K. Achaea(재무관을 지낸 곳), B. Nero(소환한 황제 아님), H. True(부유한 집안은 입양된 곳).

PART 4

파이널 — 손으로 복원한다

평가 2~3일 전.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,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.

4-1. 핵심 문장 12선 —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

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.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,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.

01 그는 25년 또는 그 이전에 태어났고, 어려서부터 진지한 학생이었음이 틀림없다. (must have p.p.)
→ **He was born in 25 AD or earlier and must have been an earnest student from a young age.**

02 그가 이 후원자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. (간접의문문을 문장 앞으로)
→ **How he met these allies we are not sure.**

03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쪽이든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이다. (what절 주어 + what절 보어)
→ **What matters is what we do with either one.**

04 그것은 카토 집안에 장가드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. (would have p.p. / like + 동명사)
→ **It would have been like marrying into the Cato family.**

05 그는 사비누스를 상대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논증해서 네로가 직접 나섰다. (형용사 + enough + 명사 + that)
→ **He made a convincing enough case against Sabinus that Nero stepped in.**

06 트라세아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자마자 그들은 마케도니아로 보내졌다. (No sooner had ~ than)
→ **No sooner had Thrasea's blood poured from his body than they were sent to Macedonia.**

07 헬비디우스는 돌아올 만큼 희망을 품고 있었다. (형용사 + enough to V)
→ **Helvidius was hopeful enough to return.**

08 그리하여 이른바 '네 황제의 해'가 시작되었다. (부사 + 동사 + 주어 도치)
→ **Thus began the so-called "Year of the Four Emperors."**

09 그는 새 황제를 개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. (take to -ing)
→ **He took to calling the new emperor by his private name.**

10 제가 의원인 한, 저는 들어가야 합니다. (so long as)
→ **So long as I am a member, I must go in.**

11 놀림당하는 데 지친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를 다시 추방하기로 했다. (분사구문 tired of being p.p.)
→ **Tired of being toyed with, Vespasian decided to banish him once again.**

12 그의 유산을 정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. (It was not A but B that)
→ **It was not words that defined his legacy but his actions.**

4-2. 숫자 · 고유명사 복원표 — 보지 않고 채우기

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.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-4로 돌아간다.

항목	답
헬비디우스의 출생 / 출신지 / 사망(159쪽 표제)	**서기 25년(본문: 25년 또는 그 이전) / 클루비아이 / 서기 75년**
아버지의 직업 / 출신지가 있는 지방 · 부족	**군인 / 삼니움 지방 · 카라케니족**
같은 이야기로 든 정치인 넷	**링컨 · 헨리 클레이 · 마거릿 대처 · 앙겔라 메르켈**

항목	답
어린 시절의 스승들 / 그들이 선으로 여긴 것	스토아 / 도덕적으로 옳은 것만
입양의 선례 둘 / 양가로 추정되는 집안	세네카의 형제 갈리오 · 스키피오 / 콰드라투스 밑의 레가투스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 집안(아마)
중요한 것(160쪽 ¶6)	운명이 주는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
첫 공직 / 그 자리를 얻은 곳	재무관(quaestor) / 아카이아
아내 / 장인	판니아 / 트라세아
56년까지 오른 자리 / 맞선 상대	평민의 호민관 / 재무 관리 올부트로니우스 사비누스
66년 트라세아의 혐의 / 증거로 쓰인 것	네로에 대한 음모 / 헬비디우스의 브루투스 · 카시우스 동조 혐의
추방지 / 함께 간 사람	마케도니아 / 아내와 두 자녀
소환한 황제 / 몇 년 뒤	갈바 / 2년(네로가 죽은 뒤)
탄핵 고발의 상대 / 결과	에프리우스 마르켈루스 / 고발을 거둠
오토의 재위 / 비텔리우스의 재위	겨우 석 달 / 여덟 달
70년의 쟁점	제국의 지출을 원로원과 황제 중 누가 통제하는가
황제와의 문답을 전한 사람 / 황제의 몫 · 나의 몫	에픽테토스 / 죽이는 것 · 두려움 없이 죽는 것
감독한 공사 / 마지막 처분	새 카피톨 건물 · 유피테르 카피톨리누스 신전 봉헌 / 다시 추방 → 처형
헬비디우스를 연설에서 부른 상원 의원 / 몇 년 뒤 · 나이	로버트 버드 / 1,927년 뒤 · 85세

4-3. 통합 사고 문제 — 21장과 22장을 잇는 자리

문제

21장에서 원로원은 트라세아를 죽이고 그의 사위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를 추방하기로 의결했고(156쪽 ¶8), 트라세아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을 되울리며 네로에 관해 한 문장을 남긴 뒤(157쪽 ¶1) 데메트리오스와 헬비디우스가 함께한 방에서 죽음을 맞았다(157쪽 ¶3~¶4). 22장의 헬비디우스는 바로 그 트라세아에게서 '자유의 정신'을 배웠고(160쪽 ¶7), 베스파시아누스 앞에서 죽이는 것은 황제의 몫이고 두려움 없이 죽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고 말했다(162쪽 인용). 트라세아의 그 문장을 영어로 완성하고, 장인과 사위가 황제 앞에서 보인 태도를 비교하는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. (각 문장에 21장 또는 22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)

트라세아의 말: Nero can kill me, but he cannot _____ me.

트라세아의 말: harm (네로는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해칠 수는 없다)
근거 1 (예시): Thrasea, condemned by the Senate under Nero, said that Nero could kill him but could not harm him, and then asked his friends to open his veins.
근거 2 (예시): Helvidius, who had learned the spirit of freedom from Thrasea, told Vespasian that it was the emperor's part to kill and his own part to die, but not in fear.
채점: 말(harm) + 두 사람이 황제 앞에서 보인 태도(죽음 앞의 평정 / 두려움 없이 말하고 죽음을 받아들임)를 각각 근거로 들 것 + 21 · 22장 어휘(condemned, spirit of freedom, your part · my part, not in fear, banish, exile 등) 포함. 두 사람 모두 황제가 빼앗을 수 있는 것(목숨 · 자리)과 빼앗을 수 없는 것(자신의 몫)을 구분했다는 공통점을 짚으면 가산. 트라세아는 내일 추방되느니 오늘 죽는 편이 낫다고 했고(21장 157쪽 첫 줄), 헬비디우스는 추방하는 것은 황제의 몫, 슬픔 없이 떠나는 것은 나의 몫이라고 했다는 대비(162쪽 인용)를 짚어도 가산.